

# “성 주류화 성공 ‘투트랙’에 달려”

<성평등정책관-여성과>

### 어제 제주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포럼서 제인 “성평등정책관 중요한 실험… 정책 총괄체계 구축을”

“성 주류화 정책의 성공은 제주도의 성평등정책관 신설과 여성가족청소년과 투트랙 전략의 실험에 달려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2시 제주 난타호텔 연회장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성평등 포럼 ‘지방자치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신설된 후 1년간의 운영상황이 공유됐으며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박기남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성주류화 전략은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개선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실패라고 답하기 이르다”며 “제주도의 성평등정책관 신설에 대한 실험은 중요한 시도이고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그러면서 “도정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갖춘 추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정책 집행 인력과 조직,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일회성 사업보다 중장기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총괄조정기능을 정착시킬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집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하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성평등정책의 실행 주체는 행정”이라며 “성평등정책관실은 대등한 공무원 조직의 일원으로서 담당공무원들이 성인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총괄하는 체계를 완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평등담당관은 자칫 타 부서들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경향상대로 인식되거나 성인지 정책은 여전히 담당관실의 고유 업무로 각인될 우려가 크다”며 “제주도의 전체 성평등 목표를 중심으로 실현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점

검·관리·총괄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반 강화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부지사 산하 성평등정책관 조직을 신설, 본격 운영했다. 이후 제주도는 ▷성 주류화 확산 신규과제 발굴 및 최우선 반영 ▷양성평등 담당관제 운영 ▷주요 정책 성인지 관점 사전검토 의무화 추진 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현숙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은 “주요 정책 성인지 관점 사전검토제의 경우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며 “더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성평등 포럼이 16일 제주 난타호텔 연회장에서 ‘지방자치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소진기자



직접 딸 감귤 들고 ‘찰칵’ 16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자연생활공원 내 감귤체험 농장에서 방문객들이 직접 딸 감귤을 들고 감귤밭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서귀포 의원들 “지역의료현안 해결 모색”

###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방안 논의

제주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최근 서귀포의료원 운영을 제주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이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서귀포시와 지역 의료인들이 서귀포시 지역의 의료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귀포시는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강충룡 부의장,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시백 교육위원장, 강연호·김용범 의원 등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 위탁운영 추진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의료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충룡 부의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서귀포의료원 위탁 운영 관련) 5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

영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서귀포의료원 의견도 수렴해 보완하는 등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서귀포시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 불편 문제가 얼마나 절실하면 위탁 운영의 말이 나왔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광순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추진협의회장은 “지역을 위해 지역응급의료를 하나씩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제주서 펼쳐지는 ‘느영나영 문화의 달’

### 공립문화시설 무료관람 제주 시내 일부도로 통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주도내 공립 문화시설이 도민과 관광객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 기념행사가 제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기간인 1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공립 문화시설에 대해 무료관람을 전면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이 행사를 유치해 ‘느영나영 문화의 달’이라는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19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산지천 하류에서 문화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제주시 산지천·목판아 일원에서는 미디어 아트전, 합동 창작전, 거리예술제, 지역문화토론회, 메이드 인 제주, 창작연극 문화공연 등 다채롭고 창의적인 행사들도 열린다. 제주도는 문화예술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한다는 방침으로 도내 공립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재 시설 21곳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문화 시설별 홈페이지 및 제주관광정보포털(www.visitjeju.net)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행사기간 제주 시내 일부 도로가 교통 통제될 예정이다.

우선 17일부터 행사 준비 관계로 산지천 하류(웅진교~북성교) 구간이 편도 통제되며, 기념식 당일인 19일은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도로가 전면 통제된다. 19일과 20일, 매일 2시간(오후 7시부터 9시) 오현단 부근 제이갓 앞 도로가 미디어 아트 전 운영으로 통제된다. 20일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의 전담식 행사가 열리는 관덕정 앞 도로인 중앙로터라-서문로터라 구간이 전면 통제될 예정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 제주, 부산 이어 두번째 가족 동반 정착률은 52%

제주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가족과 함께 지역에 정착한 이는 10명중 5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가족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주 직원을 위해 분양한 아파트의 판매율도 부산 다음으로 높았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4만923명 중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은 1만5675명으로 38.3%에 불과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온 일명 ‘기러

기 암아·아빠’는 1만2811명, 31.3%로 4.7%인 1934명은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전체 748명 중 170명(22.7%)이 가족 동반 없이 혼자 이주했고, 389명(52%)이 가족이 함께 이주했다. 186명은 미혼·독신(24.9%), 3명(0.4%)은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주기관 직원들에게 분양한 제주 혁신도시 아파트 246채 가운데 41채는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혁신도시 중 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1817채 가운데 447채를 판매한 부산(24.6%)이었고 이어 제주(16.7%), 경남(15.1%)순이었다. 부산과 제주는 최근 10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 하나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혁신도시 정착 지원 특별분양 16.7% 전매”

### 수출유망기업 39개사 선정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사업화와 수출 역량을 갖춘 39개 기업을 선정, 7억33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과 제품개발 지원, 인증·시험분석 및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제주도내 혁신기관과 주변 지역 공간적 연계 및 역량 결집을 통해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도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조상윤기자

www.토종흑염소목장.com / www.blackgoat.1939.co.kr

## 흑염소 체험농장

### 제주 편백숲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흑염소 체험농장과 힐링이 있는 곳!

흑염소 대공연 (매 시간마다)

SNS 태그 매월 추첨 50만원 상당 경품 (사은품증정)

피톤치드(자연항균물질)가 뿜어져 나오는 편백숲에서 산책하시면서 힐링과 건강도 챙기세요

오른기념으로 편백수를 드립니다

## 토종 흑염소 요리 전문점

# 흑염소 마루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진국을 드시고 온 가족이 면역력도 함께 키워보세요

메뉴

- 흑염소탕 / 전골
- 수육 / 육회
- 숯불구이 / 떡갈비

## 노린내 나지 않는 염소고기 식당 납품 가능

흑염소 마루 / 예약문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63번길 1-1

흑염소 진액 주문받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14번지 T. 064.805.5099

T. 064.764.6678